

임실군청 사격 김예지 선수, 청원시장에 권총 은메달

임실군청 사격 팀 김예지 선수가 제6회 청원시장에 전국사격대회에서 25m 권총 은메달을 획득하며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청원에서 열린 제6회 청원시장에서 김 선수는 본선 581점에 이어 결선 33점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해 뛰어난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예지 선수는 한국 사격 선수 중 유일하게 2024 파리 올림픽 개인전 두 종목 출전을 확정된 선수이며, 올해 올림픽 출전을 앞둔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올림픽에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예지 선수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준 임실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김 선수의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있을 파리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풍요로운 바다! 더욱 찬란하게!”

전북자치도 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 풍어제 · 특산물 판매 · 기자재 전시 등

전북자치도가 도내 수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수산업경영인들의 결속을 다지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회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수산업경영인과 그 가족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자치도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창출하고 위상과 지역력을 표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 고창군연합회가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군수협 등이 후원했다.

이날 대회는 풍어제, 기념식, 특산물 판매, 기자재 전시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수산업경영인 36명에게 해양수산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고창군수 표창 등을 수여했다.

한편, 1981년부터 현재까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1,752명(어업인후계자 1,328, 우수경영인 424)이 도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 등 일선 현장에서 어촌의 리더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오고 있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수산업경영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1만호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남원농협, 농가 주거환경 개선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2일, 임직원으로 구성된 NH농촌현장봉사단이 남원시 보절면의 취약농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생활 불편을 겪는 돌봄 대상자가 농협이 운영하는 '농안행복콜센터'로 상담을 통해 지원을 요청해 이뤄졌으며, 봉사단은 현장실사를 거쳐 고령·취약 농업인 주거 3곳에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지원을 받게 된 보절면 김모(60세) 어르신은 "평소 생활이 불편한데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농협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도배, 장판을 교체하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취약 농업인을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촉식

남원시는 지난 1일, 제6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촉식을 가졌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문화체육관광, 복지안전환경, 경제산업, 건설교통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편성,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사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남원시는 민선 8기 들어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직결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대폭 개편, 기존 지역위원회를 폐지하고 읍면동 추천을 통해 30명 위원으로 새롭게 구성하며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예산 전문 교육 기관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화교를 4월 9일~5월 28일까지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 알기 쉽게 주민참여예산 제인서를 작성하고 발굴하였다.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제1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민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임원 선출하였고, 4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제6기 시민위원회는 5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주민제안사업 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별 소관부서 검토 △분과위원회 현직사업 △시민위원회 심의 △대표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 제출된 의견서는 12월 남원시의회 의사안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내년 1월 중에 최종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여성새일센터, 사회복지실무 전문가 과정 수료식

김제시(시장 정성주)여성새일하계센터는 2일 교육생 13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일 4시간(월~금) 진행된 사회복지실무전문가 양성교육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구인 증가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실무경험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들의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 안정화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교육과정에서는 사회복지현장 실무 능력을 배가시키고자 관내·외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7개 사회복지기관의 현장실습을 강화했으며, 기관 평가 실무교육, 어르신 인지·신체 기능향상 프로그램 기획·운영, 요양서비스 사례관리,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교육 등으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했다.

또 사후관리 사업으로 오피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사 지원과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 교육 지원으로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가져왔다.

2명의 조기취업 연계 교육생을 제외한 수료생 13명 전원은 교육기간 중에 시니어 운동지도사 1급, 노인두뇌훈련지도사 1급, 시니어교육지도사 1급 자격증 3종을 모두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효연 센터장은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구직여성들이 적체적소의 사회복지 유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주생면, 9일까지 마을 모정 간담회 실시

남원시 주생면은 2일부터 9일까지 18개 마을을 찾아가면민과 소통하는 마을 모정 간담회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면민을 대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마을 현안에 대한 주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적기에 처리하여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을 실천하여 두루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에 나서고, 면민들에게 폭염, 집중호우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 및 농기계 안전 수칙을 안내하여 재해 예방을 당부하였다.

또한 남원시 생활인구 정책 고객 알림 서비스 및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특히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2024 남원 국제드론제전에 면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정찬 주생면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마을을 순회하며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면민 소통하며 하나되는 행복마을 주생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청년 마인드 충전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홍재)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년들의 불안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청년 마인드 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가통계포털(2022년)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사망원인 발표에 따르면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20~29세는 전체 사망원인의 50.6%, 30~39세는 37.9%로 청년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 사망자수가 질병 또는 운수사고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마음건강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원시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7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18:30~20:00시까지 진행하며, 오피넷 장비 이용한 사전 정신건강검사를 시작으로 자살, 스트레스 예방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 연계 서비스가 진행되며, 상담은 전화(1577-0199, 063-630-4122)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2024 도시재생 아카데미 개강식

정읍시와 (사)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는 지난 1일 생화초커뮤니티도서관에서 2024 도시재생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도시재생의 성공적 사례와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조직 구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장명동 각시다리 도시재생협의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자봉센터, 수요처 관리자 교육·간담회 개최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2일 공동교육관에서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70여명을 대상으로 2024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수요처란 자원봉사활동을 운영·관리하는데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해 지정한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 등의 활동처를 뜻하며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수요처는 70여개소다.

이번 교육 및 간담회에서는 센터 사업과 1365 포털 사용 및 개선사항 안내 및 수요처간의 운영 사례 공유가 주 내용이며, 이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봉사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봉사자 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기동 주민자치회, 노래교실 노래자랑 개최

정읍시 기동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일 '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노래교실'에서 상반기 결산 노래자랑을 개최했다.

노래자랑에는 주민 10여명이 참가해 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관객들은 참가자들의 노래소리에 맞춰 큰 호응을 보였다.

'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노래교실'은 2024년 기동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이다. 조연비 가수가 진행을 맡아 9월까지 주 1회(월요일 오후 2시) 무료로 운영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희망을 나누는사람들, 완주군에 1억 5천만원 상당 기탁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이 완주군에 1억 5,0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희망을 나누는사람들은 지난 2007년 설립한 교육, 사회복지 후원기관으로 희망나눔장학사업, 문화체험지원사업, 후원현물지원사업 등 다양한 나눔 사업을 펼쳐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완주군에 기탁한 물품은 LG생활건강과 대중소비기업농업협력재단에서 후원한 물품으로 삼푸,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됐다. 군은 관내 농업인 및 취약계층 주민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은행, 폭염 대비 4000만원 상당 시원키트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본점 1층 로비에서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2024 시원(COOL) 키트 나눔 전달식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및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진선 사무처장, 전북은행 박성훈 부행장 등이 참석, 4,000만원 상당의 '시원(COOL) 키트'는 도내 지자체를 통해 독거 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폭염 취약계층 85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30여 명은 이웃을 위한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해 콜라트, 여름용 휴겔이불, 선풍기 등으로 구성된 '시원(COOL) 키트' 850박스를 직접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은행 박성훈 부행장은 "장마철 이후 찾아오는 무더위에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만호 기자